

“우린 게임업계 ‘찰떡’의 형제”

넥슨 정상원사장·모바일엔즈 김정주사장

게임회사인 넥슨의 정상원(32) 사장은 100kg이 넘는 푸짐한 외모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타났다. 넥슨의 설립자이자 자회사인 모바일엔즈의 김정주(34) 사장은 양쪽 손에 핑크색 매니큐어를 칠하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독특한 분위기의 소유자였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은 그러나 게임업계에서는 찰떡궁합으로 통하는 사이, 이들은 6년간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넥슨을 국내 정상급 온라인게임 회사로 키웠다.

6년 동업...장·단점 보완

“김 사장은 잠시도 가만 있지 못하는 스타일이예요. 하루 수면 시간도 3시간에 불과하죠. 김 사장의 추진력 덕에 우리 회사가 이 정도 큰 것입니다.”(정상원 사장)
“지난 96년 온라인게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서버가 다운되는 걸 보며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때 정 사장이 게임에 대



◇게임회사 넥슨의 정상원 사장(사진 위)과 자회사 모바일엔즈의 김정주 사장은 넥슨을 정상급 온라인게임 회사로 키웠다.

/조인원기자 join1@chosun.com

해 애착을 보이지 않았다면, 넥슨은 게임회사가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김정주 사장)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김정주 사장은 94년 넥슨을 창업했다. 하지만 병역특례 복무 중이 었기 때문에 사장 직함을 달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게임은 오락 아닌 산업”

정상원 사장은 서울대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삼성SDS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그는 게임이 오락이 아니라 산업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96년 넥슨에 합류, 최초의 그래픽 온라인게임인 ‘바람의 나라’를 개발했다. 정 사장은 99년 넥슨의 자회사인 엠플레이 대표에 이어, 지난해 넥슨 사장에 취임했다.

김 사장은 올 초 병역특례기간이 끝났음에도 정 사장에게 계속 넥슨 대표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김 사장은 “게임회사의 대표는 정 사장처럼 게임에 미친 사람이 해야 한다”며 “나는 계속 새로운 사업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현재 소형 게임기 개발회사인 모바일엔즈를 설립, 게임기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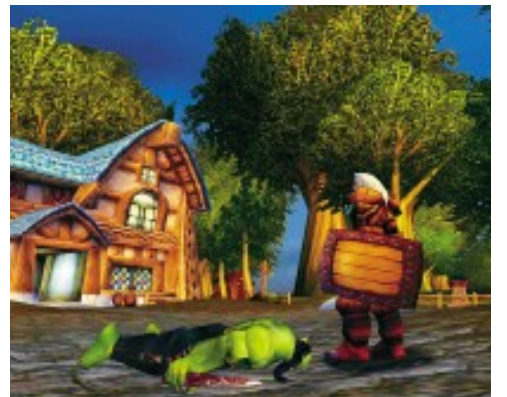
/박내선기자 nsun@chosun.com



◇시티 오브 히어로즈



◇팬텀 크래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하나의 게임, 다양한 HW로 즐긴다

지난달 美서 열린 'E3'에 나온 게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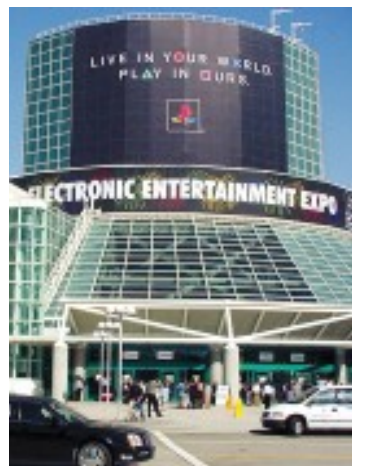
게임 월드컵으로 불리는 E3(The Electronic Entertainment Expo)은 비즈니스 중심의 행사로 향후 게임 시장을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게임 산업 최대의 축제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제8회 E3에서는 최근 게임 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원소스 멀티플랫폼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특징이다. 즉 하나의 게임을 PC용이나 온라인게임, 비디오 게임 등으로 다양한 하드웨어에 맞춰 변환시키는 것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영화와 게임이 만났다=EA, 비엔디 유니버설, 인포그램 등 세계적

기업체들은 영화를 게임화한 작품을 앞다퉈 선보였다. EA는 올해 12월 개봉 예정인 영화를 소재로 한 게임 ‘해리포터:비밀의 방’ ‘반지의 제왕:두 개의 탑(The Two Towers)’을 공개했다. 이들 게임은 다양한 종류의 비디오 게임과 PC 게임용 타이틀로 발매될 예정이다. EA는 또 플레이스테이션 2(PS2)용 액션 게임 ‘007 언더파이어’도 선보였다.

작을 선보였다. 인포그램은 ‘터미네이터’와 ‘로보캅’을 게임화했다.

◆온라인게임의 부각=‘에버퀘스트2’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파이널판타지11’ 등 다양한 비디오게임, PC 게임 등이 온라인 기능을 탑재하고 나왔다. 대부분의 온라인게임은 ‘크로스 플랫폼’(PC→비디오, 비디오→PC)으로도 개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3D 게임이 주종을 이루면서 높은 사양의 하드웨어를 요구하고 있다.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시리즈로 유명한 블리자드사가 심혈을



◇E3 행사장 전경

PC·온라인·비디오용으로 변환 가능
반지의 제왕·해리포터 등 개봉전 게임화
엔씨소프트 ‘리니지2’ 등 국내업체도 선전

비엔디 유니버설은 소설 ‘반지의 제왕’을 게임화한 3차원(3D) 롤플레이 게임 ‘반지의 제왕: 더 펠로시 오브 더 링(The Lord of the e Ring)’을 공개, 영화에 이은 흥행물 이에 나선다. 비엔디는 또 스피들버그 영화로 유명한 ‘쥬라기 공원’, 존 카렌더스의 영화 ‘더 싱’, 전설 속의 공후 스타 이소룡을 게임화한 ‘엔터 더 드래곤플레이’도 공개했다.

루카스아츠는 이미 개봉한 ‘스타 워즈 에피소드2’를 기반으로 한 3D 롤플레이 게임 ‘스타워즈 구(舊) 공화국의 기사들(Star Wars Knights of the Old Republic)’의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3D PC 온라인게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전망이다. 이 게임은 현재 베타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완성도와 작품성을 보여줬다. 이 게임은 올 여름 국내 발매 예정인 ‘워크래프트3’의 후속편으로 액션 롤플레이용으로 변신을 시도했다.

◆국내 업체도 선전=이번 E3는 세계 메이저 게임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내 업체가 탄생한 원년이다. 글로벌 마케팅의 중심 속에 선 엔씨소프트와 판타그램인터랙티브가 주인공. 두 회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임의 세계화는 물론, 해외 유명

업체의 게임 유통까지 담당, 해외 언론의 시선을 모았다. 엔씨소프트가 비디오게임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리니지2’, 판타그램의 X박스용 게임 ‘킹덤 언더 파이어:크루세이더’와 ‘샤이닝 로어 온라인’은 세계 시장에서 국산 게임의 가능성을 인정 받았다. 이들 역시 멀티플랫폼으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엔씨소프트가 내년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서비스를 예정인 미국 크립틱스튜디오의 ‘시티 오브 히어로즈’는 ‘X맨’ ‘스파이더맨’ 등 우리에게 친숙한 영웅들이 등장, 악을 물리친다는 다소 유머러스한 내용으로 주목을 받았다. 판타그램이 유통하는 일본 겐키소프트의 X박스용 슈팅 게임 ‘팬텀 크래쉬’는 그동안 ‘드림캐스트’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얻었던 명성을 X박스에서도 이어나갈지 관심을 끌었다.

/로스앤젤레스=박기원·게임조선 기자

DVD방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DVD방의 자존심!
콜롯세움의 자부심!

DVD방 콜롯세움 大모집

※ 선착순 계약자 20명만, 톱슨 DVD 플레이어 증정

- 최고급 장비와 최적의 시설 제공
- 우수상권지역 5곳 선정, 창업자금 5,000만원까지 무상 지원



영상·음향전문회사에서 콜롯세움의 가족을 모십니다.

뜨는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전년도 미국시장 명업선정률 1위 사업 - 이미 후각이 예민한 대한민국에서 뜨는 사업으로 소문났습니다. 이러한 사업이면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존 비디오방과는 개념사체가 다른 N개방의 복합 문화공간. 가용의 소규모 임대부자리면 남보다 먼저 선정하십시오.

▶ 본사지원

- 입지선정, 상권조사, 점포개발 (인테리어/장비설치까지)
- OPEN시 이벤트 지원 및 지속적 홍보관리
- 각종 판촉물 지원 및 DVD타이틀 외 영가제공
- 본사의 책임담당 직원 배치 및 철저한 A/S

MECENAT

※ 메세나란?
문화의 예술활동을 기업이 지원 하는것을 말하며, 고대 로마에서 유래한것으로 프랑스에서 구체화 되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여 신문 광고 중 일부 지면을 출판 책 불 선정하여 알리는게 사용되고 지 꼭 읽어 보아야 할 책이라고 생각되는 엔터테인먼트 예술 기행과 유혹하는 유럽 도자기를 소개한다.



상담문의
02) 515-5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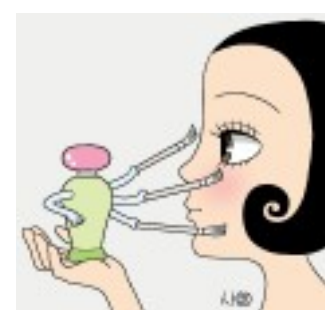
“여러분~ 미인 되세요”

‘자연 화장품’ 쇼핑물

환경공해와 스트레스로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 요즘, 자연 화장품으로 고운 피부를 유지하려는 여성들이 부쩍 늘고 있다. 자연 화장품은 화학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순(純)곡물가루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 최근 인터넷에 속속 등장하고 있는 천연 미용 재료 쇼핑물을 이용해 ‘무공해 피부 미인’이 되어 보자.

지난 4월 문을 연 쇼핑물 ‘순함’(www.soonham.com)은 피부 타입별로 세분화해 40여개의 자연화장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기미와 주근깨로 칙칙해진 얼굴이 고민인 여성들을 위해 흑죽·백분령·감초가루가 들어있는 3중세트(각 250ml)를 1만6000원에, 맥반석과 카울린 가루(각 250ml)가 들어 있는 여드름 피지제거팩을 6000원에 팔고 있다. 피부 흉터 및 잡티 제거에 좋은 울무팩(250ml)은 4000원. 또 각 개인의 특성에 맞게 1대1로 맞춤처방도 해주고 지난 6월부터는 복합 피부용 8중 세트를 20% 할인 판매하는 공동구매를 실시 중이다.

‘토종미인’(www.tojongmi-in.com)에서는 녹두·현미·검은깨·보리·들깨 등 9가지 재료들을 섞어 찹고 쌀고 찌서 만든 곡물가루 500g을 1만8000원에 팔고 있다. 100% 국내산이며 성분마다



국내산 純곡물가루 사용
피부 알레르기 위험 없어

미백·해독·영양 성분이 들어 있어 지친 피부에 생기를 주는 데 효과적이다. 세안제로 사용할 때는 적당량을 물로 개서 여러 번 저어준 후 가볍게 문지른 뒤에 씻어내면 된다. 쇼핑물 ‘폼미’(www.poongmi.co.kr)에서는 은행·단호박·상추·도라지·메밀 등 무려 15가지 재료가 들어있는 곡물가루를 구할 수 있다. 가격은 500g에 2만2000원. 화장을 지울 때에도 순(純)식물성 제품을 쓰고 싶다면 ‘맑음’(www.malgum.net)에 찾아가 보자. 피부를 탱탱하고 윤기 있게 가꿔주고 미백효과가 좋은 살구 오일(120ml)이 6800원. 세정력이 뛰어난 해마라기 오일(250ml)은 1만4000원에 팔린다. 이들 제품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화장을 말끔히 지울 수 있어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경은기자 eun@chosun.com

인터넷으로 ‘개밥’ 준다

애완 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장시간 집을 비울 때 늘 걱정된다. 먹이와 물을 언제까지 먹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터넷으로 집에 있는 애완 동물용품을 호출해 먹이를 주는 일종의 ‘인터넷 개밥통’.

PC(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기를 통해 몇 가지 홈페이지(www.MyPetWatch.com)에 접속, 펫와치의 먹이 공급통을 원격 제어하면서 먹이를 주는 원리다. 특히 이 제품은 디지털 카메라를 내장해 집을 비운 주인이 외부에서도 애완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처음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펫와치가 일정한 신호음을 내면, 애완동물이 이 소리를 듣고 개밥통으로 오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일종의 조건반사를 이용하는 셈이다. 예상 소비자가격은 50만원대.

/김기홍기자 darma90@chosun.com

